



# EIDF2020

## 명칭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 (EIDF2020)

## 기간

2020년 8월 17일(월) – 8월 23일(일)

## 장소

EBS디지털통합사옥,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

## 규모

30개국 69편 상영

## 개막식

2020년 8월 17일(월) 21:50 EBS 1TV

## 사이트

[www.eidf.co.kr](http://www.eidf.co.kr)

영화제 관련 자료와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eidf2020 / PW: eidf123!)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EIDF사무국(02-526-255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IDF2020 캐치프레이즈 & 포스터

“다시 일상으로 – 다큐, 내일을 꿈꾸다”  
(In Docs, Back to the Ordinary!)



### 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

요즘처럼 소소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까?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해이고, 이 상처와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여름의 끝자락, 극장에서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를 보고 ‘치맥’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의 시선에서,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메시지들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 포스터 Poster

2020년 우리 모두의 사고와 생활을 지배한 팬데믹은 “언택트(Untact, 비대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대부분의 영화제를 온라인으로 돌려세웠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으리라 전망했지만, 인류사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직면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도 금세 적응할 것이다.

사람들이 비대면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해온 다큐멘터리도 모두에게 닿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제작, 배급, 그리고 상영 환경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맞춰갈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담아, 각각 다른 공간에서 EIDF를 온라인으로 즐기지만 영화제를 통해 하나 되는 관객의 이미지를 선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여 개념적으로 형상화했다.

## EIDF2020 프로그램 특징

### EIDF2020, EIDF만의 플랫폼이 주목받다

제17회 EBS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2020')가 오는 8월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EBS사옥을 중심으로 고양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EIDF는 2004년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영화제로서 국내외 우수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소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극장 상영 외에도 EBS 1TV 채널 편성과 전용 VOD 서비스인 D-BOX 등 세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영화제로서 차별화 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영화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EIDF가 구축해온 플랫폼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올해 EIDF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극장 상영을 생략하고 EIDF만의 TV 상영과 온라인 플랫폼에 더욱 주력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앞서가는 영화제로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한다.

###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

EIDF2020은 일산호수공원에서 진행하는 금, 토 이틀간의 야외상영을 통해 올해도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다큐멘터리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한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야외상영은 철저한 방역 계획 및 준비 하에 이루어진다. 개막식과 폐막식 역시 EBS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EIDF-고양 모바일 단편 공모전'과 함께 특별 공모전 'EIDF-고양 코로나 시대의 일상 초단편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관객 대상의 공모전을 확대하여 다큐멘터리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코로나 시대에 관객들과 함께하며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EIDF의 메시지를 강조한다.

또한, EIDF2020은 관객심사단을 구성, 시청자 투표와 함께 시청자 · 관객상 수상작 선정에 더욱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많은 지원자로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던 관객심사단 모집에서 EIDF에 대한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IDF2020 프로그램 특징

### 다양한 주제의 12개 섹션, 30개국 69편

EIDF는 TV와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유일한 영화제로서, 폭넓은 관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EIDF2020은 “다시 일상으로 – 다큐, 내일을 꿈꾸다” 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들의 일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다운증후군을 극복하고 모델이자 인플루언서로서 세계를 누비는 매들린의 이야기 〈매들린, 런웨이의 다운증후군 소녀〉를 필두로 12개 섹션의 30개국 69편이 TV와 온라인으로 방영되고 두 번의 야외상영으로도 관객을 찾아간다.

경쟁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는 올해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과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두 부문으로 나뉘어 아시아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는 EIDF의 노력을 강조한다. ‘페스티벌 초이스’에서는 대상, 다큐멘터리고양상, 심사위원특별상, 시청자관객상이 결정되며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EIDF가 자랑하는 기존 섹션인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 ‘월드 쇼케이스’, ‘예술하다’ 외에도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하는 ‘다큐 속 무형유산’ 역시 올해도 계속된다.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박물관과 교육을 주제로 기획한 ‘내일의 교육’ 섹션을 통해, 전 세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 聲(성)’은 EIDF2020이 준비한 특별 섹션으로, 여성들이 서사를 이끄는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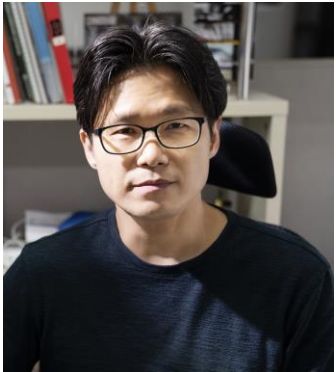
이 외에도 아시아의 우수한 단편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아시아 단편선’, 베르너 헤어조크, 스탠리 큐브릭, 고든 퀸 등 거장의 작품과 거장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담은 ‘마스터스’ 등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들이 시청자를 기다린다.

##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 부문〉



제인 레이 Jane Ray

영화, TV, 오디오 계에서 떠오르는 다큐멘터리 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인 '더 위커스(The Whickers)'의 컨설턴트 아티스틱 디렉터이며, 라디오와 TV 부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책임 프로듀서이다. 소니어워드 베스트 뉴스 프로그램상(2002), TRIC어워드 베스트 아동 프로그램상(1993), 중국의 골든카폭어워드 최우수감독상(2014) 등을 수상하였다. 29년을 BBC와 함께한 그는 1990년대에 앨런 위커와 함께 일한 바 있으며, 2015년에 더 위커스 재단을 설립하는 데 합류했다. BBC 라디오 4에서 앨런에 대한 아카이브 프로그램 〈앨런: 80년 동안의 세계 일주〉의 각본과 연출도 맡은 바 있다.



이승준 Yi Seungjun

〈보이지 않는 전쟁 - 인도 비하르 리포트〉(1999)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했다. 〈신의 아이들〉(2008, 전주국제영화제 NETPAC상), 〈달팽이의 별〉(2011,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IDFA) 장편 부문 대상, EIDF 유니세프 특별상 및 관객상), 〈달에 부는 바람〉(2014, EIDF 유니세프 특별상), 〈크로싱 비욘드〉(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영화), 〈그림자꽃〉(2019, DMZ 국제다큐영화제 최우수한국 다큐멘터리상) 등을 연출했다. 뉴욕다큐멘터리페스티벌 단편 부문 대상을 받은 〈부재의 기억〉(2018)은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 부문〉



지혜원 Jee Hyewon

25년간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활동했다. 〈엄마와 클라리넷〉(2015)으로 뉴욕TV&FILM페스티벌 금상과 ABU최우수상을 받았고, 〈앵그리 버드와 노래를〉(2016)로 IDFA와 셰필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비롯해 26개국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으며, BCM 국제공동제작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작으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안녕, 미누〉가 있다.



최평순 Choi Pyeongsoon

환경, 생태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다. 2010년 플라스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감독했고, 2011년 EBS에 입사 후 〈하나뿐인 지구〉, 〈이것이 야생이다〉 등 EBS TV 프로그램을 기획, 연출하고 있다. 2017년 유인원 기번의 생태를 다룬 〈긴팔인간〉이 국제와일드라이프 영화제, 바사환경영화제에 초청됐으며, 2019년 연출한 〈인류세〉가 SFF 과학영화제, 시네마베르데환경영화제 경쟁 부문에 선정됐다. 현재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여섯 번째 대멸종〉 5부작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있다.

##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부문〉



김일란 Kim Il-rhan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다양한 인권침해 현장을 기록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단체인 연분홍치마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남성들을 다룬 〈3xftm〉, 용산 참사의 법정 기록을 담은 〈두 개의 문〉과 후속작으로 용산 참사 피해자들의 삶을 담은 〈공동정범〉 등을 만들었다.



김훈석 Kim Hoonseok

1997년부터 EBS에서 기획, 연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시대의 초상〉, 〈배워서 남줄라〉, 〈건축탐구 집〉, 다큐프라임 〈서울은 사랑할 것이 많다〉, 〈가족쇼크〉 등을 연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작품상,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한국 PD대상 실험정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EBS 교육제작부 부장이다.



##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 부문〉

## 그레이스 리 Grace Lee



그레이스 리는 LA 기반으로 픽션과 논픽션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녀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를 감독하고 제작했다. 다큐멘터리 〈아시아계 미국인〉의 프로듀서 및 감독이기도 하다. 다른 작품으로는 피바디상을 수상한 〈아메리칸 레볼루셔너리: 디 에볼루션 오브 그레이스 리 보그스〉, 에미상 후보에 오른 PBS 다큐멘터리 〈메이커스: 정치계의 여성들〉이 있으며, 〈K-타운 '92〉, 〈오프 더 메뉴: 아시아계 미국인〉, 〈그레이스 리 프로젝트〉 등이 있다. 그레이스 리는 전국적 영화인 주도 집단이자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다큐멘터리 부문의 회원인 '아시아계 미국인 다큐멘터리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이다.

## 마크 시그문드 Mark Siegm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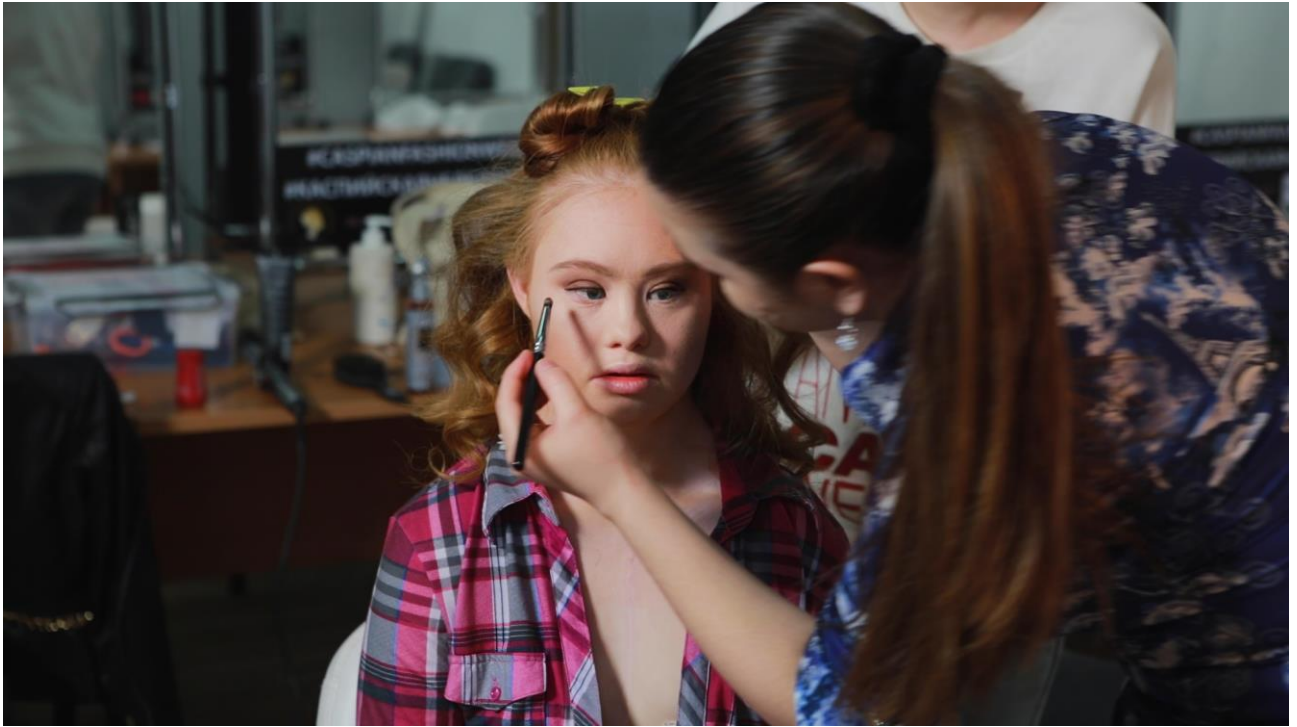


1990년대 초 독립 영화 프로젝트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1996년 라이프치히 시네마테크의 책임 디렉터이자 공동 프로그래머를 역임했다. 2000년 중반에 서울영상위원회의 해외 사업팀에서 50건 이상의 국제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공동 제작비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 독일 라이프치히영화제에서 '국가 포커스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큐레이팅했고, 2018년까지 동아시아에서 프로그램 자문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국제/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위한 프로덕션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NPO, BBC, ARTE, ZDF, MDR, BR, 디스커버리네트워크 아시아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KBS, EBS, MBC와 함께 일한 바 있다.



## EIDF2020 개막작

매들린, 런웨이의 다운증후군 소녀 Maddy the Model



얀 망누손 Jane Magnusson / Sweden / 2020 / 95' / Color / 전체관람가

매들린 스튜어트는 패션계의 유명 인사다. 그녀는 뉴욕 패션위크의 런웨이를 걸었고, 페이스북에서 7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디어에 보도된 바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슈퍼모델 타이틀에 도전하는 매들린의 여정을 담으며 정체성, 아름다움,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에 도전하고 있다.

## EIDF2020 프로그램 섹션

### 페스티벌 초이스(경쟁) Festival Choice (Competition)

EIDF의 공식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가 올해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과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의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페스티벌 초이스’는 세계 다큐멘터리 작품들의 최신 경향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주목받아 왔다. 올해는 두 부문을 통해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며, 아시아다큐멘터리제작지원에 힘쓰는 EIDF의 노력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 -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 글로벌 Festival Choice (Competition): Global

‘페스티벌 초이스: 글로벌’의 선정작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등 전 세계의 작품들로, 흥미로운 형식과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대상에는 상금 1,000만 원, 심사위원특별상에는 상금 700만 원, 시청자·관객상에는 상금 400만 원과 상패가 각각 주어진다.

#### -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 아시아 Festival Choice (Competition): Asia

‘페스티벌 초이스: 아시아’의 선정작들은 제작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시아 국적을 가진 인물들이 이끄는 작품들까지 아우른다. 많은 국제적 협력 속에서 제작이 이루어지는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을 반영하며, 아시아를 무대로 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통해 그 경향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선정되었다. 대상인 다큐멘터리고양상에는 상금 1,000만 원,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상금 700만 원, 시청자·관객상에는 상금 400만 원과 상패가 각각 주어진다.

###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 Korean Docs Panorama

‘한국 다큐멘터리 파노라마’는 한국 다큐멘터리들의 최근 경향을 보여주는 섹션이다. 올해는 화제성과 대중성으로 모두 주목받았던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비롯하여 TV 다큐멘터리의 훌륭한 작품성을 보여주는 〈학살의 기억들〉, 최신작인 원주 지역의 노화백 이야기 〈원평〉과 애니메이션 작품 〈호랑이와 소〉 등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장단편들로 구성되었다.

### 월드 쇼케이스 World Showcase

‘월드 쇼케이스’에서는 인도, 독일, 스위스,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마케도니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품들과 대중적인 소재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작품들이 함께한다. 가족, 동물과 같은 친근한 소재가 기발하면서도 묵직한 주제로 이어지고, 전쟁, 파시즘과 같은 심각한 주제들이 재미있고 따뜻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가오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 아시아 단편선 Asian Shorts

다큐멘터를 통해 아시아의 동시대 정치, 사회, 문화를 포착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해왔던 EIDF가 마련한 특별한 섹션이다. 장편과는 또 다른 단편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내러티브의 힘과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다섯 편의 아시아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 EIDF2020 프로그램 섹션

### 마스터스 Masters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넘나들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뉴저먼 시네마의 기수 베르너 헤어조크의 최근작 <고르바초프를 만나다>와 <유랑: 브루스 채트윈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비롯하여, 미국 독립 다큐멘터리계의 살아 있는 전설 고든 퀸 감독의 초기작 <수녀님들이 물었습니다>, 수식어가 필요없는 감독 스탠리 큐브릭과 그의 작품 세계를 그린 <스탠리 큐브릭 오디세이>, 2013년 타계한, 캐나다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피터 원토닉에 대한 그의 딸의 기억인 <나의 아버지 피터 원토닉>, 발틱 영화계의 뉴웨이브 운동을 이끌었던 감독들의 발자취를 따라간 <시간의 편린들> 등 영화의 거장들이 만든 작품과 거장들에 대한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

### 내일의 교육 Color of Education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교육박물관과 공동 기획한 내일의 교육 섹션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국의 치열한 입시 문화, 초등학교에 입학한 라트비아의 어린이들, 조지아 음악학교의 학생들, 중국 우한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9/11 사태가 일어났던 역사적인 순간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참관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의 학생들의 12년 후의 모습 등 교육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수준 높은 교육 다큐 영화들을 소개한다.

### 여, 聲(성) Voice of Women

EIDF2020의 특별섹션인 ‘여, 聲(성, 소리 성)’에서는 여성들이 서사를 이끄는,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들, 기차로 무전여행을 하는 여성들, 며느리로서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 가정부 교육을 받고 해외로 파견되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만나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한 가족사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다큐 속 무형유산 Intangible Heritage in Docs

인류가 전승해가는, 그리고 전승해나가야 할 무형문화유산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 섹션이다. 북극권 원주민들의 춤과 노래, 이란의 전설적인 음악인이자 시인의 노래와 삶, 중국 예술가의 인형극, 그리고 한국의 무형문화 자산이자 바로 잡아야 할 역사인 기생들의 기예, 최근 다시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는 전통 스포츠 씨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권의 무형유산의 가치가 담긴 작품들이다.

### 예술하다 Life Is Art

예술과 예술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들은 언제나 흥미롭다. 올해 ‘예술하다’ 섹션은 노르웨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오로라와 세계적 피아니스트 유자 왕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국내에서는 아녜스 바르다와 함께 한 다큐멘터리로 잘 알려진 JR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벽화 프로젝트에 함께하며, 격동의 중국 문화대혁명을 겪었던 한 노화백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제공한다.

## EIDF2020 프로그램 섹션

### EIDF-고양 모바일 단편 공모전 Mobile Shorts Competition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시청자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모바일 단편 공모전에서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3분 이내의 다큐멘터리 작품들 중 예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8편을 소개한다. 선정된 작품은 영화제 기간 중 EID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되며,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최우수상 1편에는 300만 원의 상금, 우수상 2편에는 각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EIDF-고양 ‘코로나 시대의 일상’ 초단편 공모전 Extreme Shorts Competition "In the Time of Covid-19"

EIDF2020의 특별전인 ‘코로나 시대의 일상’ 초단편 공모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난 2020년 상반기 우리 일상을 소재로 한 3분 미만의 초단편 다큐멘터리 작품을 공모했다. 예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8편은 영화제 기간 중 EIDF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되며,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최우수상 1편에는 200만 원의 상금, 우수상 2편에는 각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EIDF2020 프로그래머 추천작

### 1. 매들린, 런웨이의 다운증후군 소녀 Maddy the Model

얀 망누손 Jane Magnusson / Sweden / 2020 / 95min

매들린 스튜어트는 패션계의 유명 인사다. 그녀는 뉴욕 패션위크의 런웨이를 걸었고, 페이스북에서 7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디어에 보도된 바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슈퍼모델 타이틀에 도전하는 매들린의 여정을 담으며 정체성, 아름다움,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에 도전하고 있다.

### 2. 499

로드리고 레예스 Rodrigo Reyes / Mexico, USA / 2020 / 88min

16세기의 한 정복자가 현대 멕시코에 발이 묶이게 되고, 499년 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식민화 된 멕시코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마주하게 된다.

### 3. 불어오는 노래 None of Your Business

캄란 헤이다리 Kamran Heidari / Czech Republic, Iran / 2019 / 64' / Color

<불어오는 노래>는 이란 남부에서 유명한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에브라힘 몬세피(에브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그는 70년 전 반다르아바스에서 태어나 50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음악은 죽음 직후에 점차 알려지고 발표되기 시작했다.

### 4. 스탠리 큐브릭 오디세이 Kubrick by Kubrick

그레고리 몽로 Gregory Monro / France, Poland / 2020 / 60min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적 유산에 남긴 업적은 과히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는 그 어떤 감독보다도 많이 연구된 감독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큐브릭 감독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영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그의 말을 직접 들을 기회는 적었던 큐브릭 감독의 친밀한 초상으로 관객을 이끈다.

### 5. 유랑: 브루스 채트윈의 발자취를 따라서 Nomad: In the Footsteps of Bruce Chatwin

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 UK / 2019 / 85min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은 그의 친구이자 모험가, 그리고 전설적인 작가인 브루스 채트윈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헤어조크 감독은 채트윈이 임종의 자리에서 그에게 남긴 배낭을 배고 그의 예술과 개성을 만들어 낸 유랑의 삶과 열정을 발견하며 발자취를 따라간다.

## EIDF2020 프로그래머 추천작

### 6. 9/11 키즈 9/11 Kids

엘리자베스 세인트 필립 Elizabeth St. Philip / Canada / 2019 / 88min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귀엣말.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16명의 아이들 앞에 앉아 있었다. 이 영화는 그 아이들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룬다. 이제 20대 중반의 성인이 된 그들은 9/11 테러 이후의 미국에 대하여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 7. 발헨 호수의 비밀 Walchensee Forever

야나 지 원더스 Janna Ji Wonders / Germany / 2020 / 110min

야나 지 원더스 감독은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발헨 호수의 비밀>에서 지난 100년에 걸쳐 이어져온 여성 4명의 삶을 들여다본다. 삶과 사랑, 그리고 죽음을 좇는 여정에서 정체성, 뿌리,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이는 영원히 반복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다.

### 8. 아네르카, 생명의 숨결 Anerca, Breath of Life

요하네스 레흐무스칼리오, 마르쿠 레흐무스칼리오 Johannes Lehmuskallio, Markku Lehmuskallio / Finland / 2020 / 86min

이 영화는 음악, 춤, 퍼포먼스가 가지는 힘, 그리고 매일의 삶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 최소한의 것들로 살아가는 보통의 삶은 음악과 다양한 자기 표현의 중요한 원천이다. 삶은 그 차제로 숨을 쉰다. 이 영화에서는 축치족,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이누이트족, 캐나다의 세이지 데네 선주민족, 그린란드인, 사미족, 네네츠족, 셀쿠프족, 응가나산족 등의 문화를 다룬다.

### 9. JR의 벽화 프로젝트 One Thousand Stories: The Making of a Mural

타샤 판 잔트 Tasha Van Zandt / USA / 2020 / 14min

2018년, 예술가 JR과 그의 팀은 샌프란시스코를 한달 동안 머물며 53피트 트레일러 트럭을 24개의 장소에 주차해 놓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했다. 그 결과, 총 1,2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고, 사진 촬영과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벽화로 남겨져 현재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 10. 그루밍 Well Groomed

레베카 스톤 Rebecca Stern / USA / 2019 / 88' / Color

애완견 미용 대회는 미국에서 가장 다채로운 행사이며 영화는 이 대회에 예술가들의 감성과 상상력을 포착했다. 1년간 이 추천연색 대회를 순회하고 있는 4명의 챔피언들과 그들의 멋지고 생기 넘치는 강아지들을 따라 창의적 과정을 탐구하며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미국의 한 모습을 활기차게 담아냈다.